산업보건 주요뉴스

5대 항만 특별점검 결과 안전보건상 미비점 다수 발견

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지난 2021년 4월 22일 발생한 ㈜동방 평택지사 사망사고(재해자 고 이선호)와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, 해양수산부 및 항만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5대 항만 및 ㈜동방 전국지사 등에 대한 특별점검 · 감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.

평택항 사고는 2021년 4월 22월 16:09경 경기도 평택항 내 CFS 창고 앞에서 FR컨테이너 보관을 위해 ㈜동방이 좌우 벽체를 접는 작업 중, 지게차로 좌측 벽체를 접으며 발생한 충격으로 우측 벽체 전도,그 당시 컨테이너 내 화물고정용 나무 제거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전도되는 벽체에 깔리면서 사망한 재해이다.

사고 직후, 평택지청에서는 ㈜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FR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한 후, 평택지청 내에 사고수습 ·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조사 · 분석하는 한편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.

이를 통해 당일 사고가 발생한 것은, ①사고 컨테이너에 대한 전도방지조치(고정핀 장착 등)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, ②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진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신호 또는 안내가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던 점, ③지게차의 활용이 부적절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.

또한, ㈜동방 평택지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, 재해자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.

평택지청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위반사항과 관련, 이번 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며,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.

*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"5대 항만 특별점검 결과 안전보건상 미비점 다수 발견"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.

뇌 · 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받으세요
경비원, 택시 · 버스운전원, 택배 · 배달종사자 등 정밀검사 비용지원

안전보건공단(이사장 박두용)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뇌 ·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심층 건강진단과 주기적 건강상담,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「뇌 · 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」을 실시한다.

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) 중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로서, 경비원, 택시 · 버스운전원, 택배기사 · 배달종사자 등 고령 · 장시간 노동 · 야간작업 등으로 뇌 · 심혈관질환 위험에 취약한 직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.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약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총 32.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,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%를 지원한다.

지원신청은 6월 7일부터 공단 누리집(https://www.kosha.or.kr)을 통해 할 수 있으며, 신청자격은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. 건강진단은 현재까지 사업참여를 신청한 전국 26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며, 추후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.

이번 지원의 특징은 뇌 · 심혈관질환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심장초음파, 심전도, 경동맥 초음파 등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정밀건강진단을 한다는 점과 그동안 일회성 건강진단 지원에만 머물러 있었던 기존 지원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심층건강진단 이후에도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.

심층건강진단 실시 이후에는 주기적인 건강상담 이외에도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.

* 해당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"뇌.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받으세요"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.

'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' 개최

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개 산하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, 6월 3일 15:00 정부세종청사에서 「산하 공공기관장 회의」를 주재했다.

이번 회의는 ①기관별 핵심사업 추진상황 점검, ②국민의 신뢰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이 자리에서 안경덕 장관은 “오는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, 가입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”과“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, 현장의 안전조치 지도 · 감독,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전력을 다할 것”을 거듭 당부했다.
아울러, 급변하는 산업현장과 고용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그보다 더 빠르게 공공서비스의 변화방향을 고민해야 하며,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, 업무의 중심을 국민에 두고 조직의 체질 개선과 역량 강화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.

*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“‘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’ 개최”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.

‘네이버’ 대상 ‘특별근로감독’ 실시

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.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,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,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,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. 아울러,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 · 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.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.
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,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.
고용노동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.

*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“「네이버」 대상 「특별근로감독」 실시”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.